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도입됨.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수의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을 평가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고려한 영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되도록 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이하, '디폴트옵션'¹⁾)'가 도입됨
 -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되었음
 - DC형 퇴직연금은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므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음
 -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상품을 교체해 본 적이 없는 가입자의 비중이 68.4%에 달함
 - 당국은 퇴직연금이 적절히 운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전문성 부족 등으로 파악하고 있음²⁾
 - 전체 255조 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 퇴직연금은 67.2조 원, IRP는 34.4조 원을 차지하고 있음³⁾
- 사업주(기업)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근로자(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함
 -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친 금융상품들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을 마련함

1) 퇴직연금 사업자 혹은 사업주가 임의로 운용상품을 지정하는 미국 등의 디폴트옵션과는 차이가 있음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2. 9)
 3) 금융감독원(2021).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디폴트옵션은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실적배당형 집합투자증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의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보호절차를 지켜야 함

○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산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는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됨

- 최초 가입 후 혹은 기존 운용상품 만기도래 후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된 경우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될 경우 퇴직연금 자산은 사전에 지정해둔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됨
- 직접 자산운용지시를 내리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자산운용을 하고 싶은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가능함
 - 디폴트옵션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직접자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직접 운용지시가 가능함

○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인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산이 운용될 금융상품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업주 혹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결정하는 미국 등의 디폴트옵션과는 차이가 있음

-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자는 최초 가입 시 운용지시를 내려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함
 - 단, 가입자는 수많은 금융상품을 일일이 검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선별한 소수의 금융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 가입자의 선택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DC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 중 다수가 디폴트옵션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디폴트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별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가입자에게 제안되는 상품으로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역시 디폴트옵션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중이 86%에 달하고,⁴⁾ 디폴트옵션을 통해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음⁵⁾

○ 디폴트옵션 도입이 단기간에 퇴직연금의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으로 확대되어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디폴트옵션을 통한 실적배당형 투자 증가 사례로 미국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디폴트옵션은 금융회사 혹은 사업주가 디폴트옵션을 결정하고 우리나라는 가입자가 자산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 혹은 금융기관 같은 법인은 위험중립적이므로 개인에 비해 실적배당형 투자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개인은 위험회피적이므로 법인에 비해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할 유인이 큼
- 우리나라 대다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임

4) Beshears, Choi, Laibson, Madrian(2006), "The Importance of Default Options for Retirement Savings Outcomes: Evidence from the U.S."

5) 남재우(2019), 「디폴트옵션제도와 타겟데이트펀드」

- 설문조사에 따르면 58.1%의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음⁶⁾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67.2조 원 중 56조 원(83.3%)은 원리금보장형, 나머지 11.2조 원(16.7%)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음⁷⁾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IRP 역시 전체 적립금 34.4조 원 중 25.2조 원(73.3%)가 원리금보장형, 나머지 9.2조 원(26.7%)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단, 장기적으로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다면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
-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중 자산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퇴직연금 사업자가 디폴트옵션에 포함될 금융상품을 선별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시하므로 디폴트옵션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추천효과를 가지게 됨
 -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중 자산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담 혹은 추천 등은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디폴트옵션 구성 및 추천에서 금융회사의 역량, 영업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 및 금융권역별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비교하는 자료가 주기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까지는 DC형 퇴직연금 및 IRP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 비교가 금융회사별의 자산운용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상품 선별 및 추천 등 서비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디폴트옵션과 수익률 공시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IRP의 경우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임
 -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역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 등이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은 사업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및 추천 시 가입자 편익 최대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보다 수수료 등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상품으로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상품구성은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

6) 한국경제·미래에셋(2021), 「퇴직연금 설문」

7) 금융감독원(2021).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감독 당국은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구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폴트옵션이 제공된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운용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입자이므로 가입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자산운용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중요함
 - 디폴트옵션은 일반적인 가입자를 가정한 상품으로 구성되므로 가입자 개인에 최적화된 투자안을 제시할 수는 없음